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스프링 캠프를 진행한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지난 2일 마지막 훈련이 끝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악바리 KIA 야구 기대하세요”

‘48일간의 캠프’ 마친 KIA 김기태 감독

선수들 체력·실력 향상...가용 인원 늘어  
루키 김윤동·부상 복귀곽정철 등 기대감  
시범경기서 다양한 마무리 카드 시험할 것

‘호랑이 군단’의 위명업이 끝났다. 미국 애리조나를 거쳐 일본 오키나와에 스프링캠프를 차렸던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3일 2016시즌 스프링캠프를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KIA 선수단은 1차 애리조나 캠프(1월 16일부터 2월 7일)에서 체력 및 기술훈련을 통해 몸을 만든 뒤 지난 8일부터 오키나와에서 한국 및 일본 팀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았다.

48일간의 캠프에서 김기태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는 내야수 최병연을 ‘감독상’ 주인공으로 선정했다. 캠프 MVP는 마운드의 셋별 김윤동에게 돌아갔다. 야수 부문 ‘캠프상’은 김주형, 오준혁, 김호영, 윤완주, 신범수가 김다원은 ‘특별상’을 받았다. 투수 부문 ‘캠프상’은 한승혁과 홍건희에게 돌아갔다.

선수단은 귀국 후 하루 휴식을 취한 뒤 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훈련을 시작, 8일 개막하는 시범경기에 대비한다.

캠프를 지휘한 김기태 감독은 이번 스프링 캠프에 대해 “선수들의 체력이 좋아졌고, 정규리그에 가용할 인원이 늘어났다는 소소”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김기태 감독과의 일문 일답.

-캠프를 마친 소감은.  
▲캠프 막판 몇몇 선수들이 경미한 부상으로 조기 귀국 하기도 했지만 선수들 모두 훈련을 잘 소화했다. 부담 첫 해였던 지난해와 비교해 본다면 무엇보다 선수들의 체력이 좋아졌고 144경기를 치러야 하는 정규리그에서 가용할 인원이 늘어난 점이 큰 소소이다.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선수, 코칭스태프, 프런트 모두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줘 고맙게 생각한다.

-투수진 평가를 해본다면.  
▲선발전에서는 국내 투수와 두 외국

인 투수 등 나름대로 구성이 잘 된 것 같다. 다만 우리 팀이 가을 야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간 계투진과 마무리 투수의 활약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새롭게 가세한 투수들이 많이 다행이다. 김윤동, 정용운 등 젊은 투수들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고, 한기주와 곽정철 등 재활에서 돌아온 선수들에 대한 기대도 크다. 마무리는 시범경기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하면서 계속 시험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새로운 외국인 투수에 대한 평가는.  
▲기량은 이미 검증됐다고 본다. 다만 이 선수들이 얼마큼 한국 야구를 이해하고 팀 플레이에 녹아 드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캠프 기간 내내 국내 선수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이미 팀 분위기에 적응한 듯 하다.

-야수진에서 얻은 성과는.  
▲전체적으로 타자들의 파워가 늘었다. 겨우내 웨이트 등 개인 훈련을 잘한 것 같다. 지난해 공격력이 약했는데,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결국 공격력 강화가 필수일 것이다. 김주형과 나지현 등 중고참 선수들이 제 몫 해 준다면 팀에 여러가지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캠프 기간 동안 선수들에게 특별히 주문한 것이 있다면.  
▲투수들에게는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적극적인 승부를 하라고 했고, 반대로 타자들에게는 불리한 볼카운트에서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투타에 상반된 주문을 한 것인데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강팀이 되는 것이다. 이번 캠프에서 최병연에게 감독상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귀국 후 곧바로 시범경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연습 경기 동안에는 전혀 사인을 내지 않았다. 선수들 스스로 알아서 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시범경기는 다르다. 실전을 바로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정규리그와 같이 다양한 작전도 내면서 모든 것을 테스트해볼 생각이야. 물론 이 기간 안에 팀 베스트 전력을 구성할 것이다. 무엇보다 부상 선수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올 시즌 어떤 야구를 추구하고 싶은가.  
▲팬들에게는 재미있는 야구, 상대팀에게는 끈질긴 야구를 하고 싶다. 프로 세계에서 상대에게 편안하게 보이면 이미 그 승부는 끝난 것이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약자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그 모습이 팬들에게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야구가 될 것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직



## 강정호, 뛰는 건 무리

트레이너 “훈련 늘려...수비·타격은 가능”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몸 상태가 좋아졌지만 아직 주루는 무리라고 MLB닷컴이 전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인 MLB닷컴은 3일(한국시간) 피츠버그 수석 트레이너인 토드 톰치크의 발언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톰치크 트레이너는 “강정호는 이번 주 들어 더욱 많은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술받은 왼쪽 무릎이 주루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주에는 강정호의 ‘야구 활동’(baseball activities) 빈도와 양을 모두 늘리는 것이 구단 계획이라고 트레이너는 전했다. 그는 “수비와 타격은 가능하지만 현시점에서 주루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9월 18일 시카고 컵스와 홈 경기에서 수비 도중 병살을 막으려는 1루 주자의 고의적인 슬라이딩에 왼쪽 무릎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시즌을 접었다.

MLB닷컴은 강정호가 4월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피츠버그는 강정호가 개막전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는 경우와 부상자 명단에 속하는 경우를 모두 염두에 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박병호, 홈런은 무리

첫 시범경기 무안타...11개 공 중 파울 1개뿐

호된 신고식을 치른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는 “오늘은 성적을 떠나서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메이저리그에서 첫 경기를 치른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병호는 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나스 제트 블루파크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 시범경기에서 6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박병호는 시범경기 데뷔전에서 3타석 모두 삼진으로 물러나며 흑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1회초 2사 만루, 3회초 2사 1, 2루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박병호는 5회초 1사 1루에서 서서 삼진을 당했다.

박병호는 11개의 공 중 안타와 볼넷 없이 파울만 딱 1개 기록했다. 그것도 잘 맞은 파울 타구가 아니라 빗맞아서 타석 주변을 구르는 파울이었다.

그는 “오랜만에 경기를 했고 (메이저리그 투수들) 처음 상대해봤다”며 “(한국프로야구와) 다르다기보다는 투수에 대한 정보 없이 경기를 나갔고, 오랜만에 경기를 했고 첫 경기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시범경기 KIA 불펜 완성 키워드

### 연습처럼만 김윤동 캠프 페이스 이을까

### 부상 조심 한기주·곽정철 ‘복귀 테스트’

시범경기를 통해 완성할 KIA의 불펜, 키워드는 ‘지급처럼만’과 ‘부상조심’이다.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단이 3일 48일간의 대장정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4일에는 대만에서 칼을 갈아둔 투수단도 귀국한다. 위명업을 끝낸 ‘호랑이 군단’은 8일 시범경기를 통해 본 시즌 준비 태세로 전환한다. 핵심은 불펜 완성이다.

김기태 감독은 캠프 결산 인터뷰를 통해 “가을 야구를 위해서는 중간 계투진과 마무리 투수의 활약이 중요하다. 마무리는 시범경기가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하면서 시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감독은 새롭게 가세한 투수들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그 중심에는 캠프 MVP 김윤동(사진)이 있다.

김윤동은 스프링캠프에서 4차례의 연습경기에서 등판해 12이닝을 3실점으로 막아내며 눈길을 끌었다. 김윤동은 경복고를 졸업하고 외야수로 입단, 투수로 전향한 뒤 상무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 1993년



생 막내 예비역에게는 출가 분하게 야구를 다시 시작하는 첫 해, 연습경기에서의 페이스는 좋았다. 특유의 묵직한 직구를 바탕으로 자신감 있는 피칭을 하면서 일본의 정교한 타자들과도 좋은 승부를 펼쳤다. ‘지급처럼만’이 김윤동에게 필요하다.

김윤동은 “사실 일본 타자들을 잘 몰랐다. 내 공만 던지자는 생각으로 정면 승부를 했다. 한국의 잘 아는 타자들을 만나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던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범경기는 김윤동이 1군 무대에서 통할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다. 연습경기에서 보여줬던 ‘무념무상’과 ‘자신감’이 필요하다. 8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을 펼쳤던 김윤동은 4번째 등판이었던 한화와의 경기에서 실점을 기록했다. 아쉬진의 실책 등이 겹치기

는 했지만 잘 던지던 김윤동이 잘 아는 상대 앞에서 위기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진짜 상대들과의 승부 ‘무념무상’으로 ‘지급처럼만’이 필요한 김윤동이다.

김기태 감독이 기대하는 또 다른 자원들에게는 ‘부상조심’이 필요하다. ‘캠프상’을 받은 한승혁과 김기태 감독이 기대주로 언급한 한기주, 곽정철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달라진 투구폼과 마인드로 홍건희와 함께 투수부 캠프상 주인공이 된 한승혁은 성장통을 앓고 있다. 달라진 투구폼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팔상태가 회복을 보이고 있다.

애리조나 캠프에서 좋은 밸런스를 보여줬던 한기주도 오랜만에 실전피칭을 하면서 허벅지 쪽에 통증이 왔다. 두 선수 모두 우려할 상태는 아니다. 특히 한기주는 조기 귀국을 하기는 했지만 연습경기 피칭까지 준비하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둘다라도 두드러가야 하는 두 사람이다.

계속된 부상과 수술로 오랜 시간 재활을 해왔던 곽정철도 시범경기를 통해 복귀 테스트를 받을 전망이다. 다만 캠프에서 연투까지 소화하는 등 움직임은 좋다. 하지만 역시 ‘부상조심’이 먼저 이야기되는 선수다.

‘지급처럼만’과 ‘부상조심’으로 맞이할 또 다른 마운트 시험이 8일 시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